

(KIC중국, 2021.5.28)

□ 주미 중국대사관 “코로나19 기원 정치화 속임수 이제 그만”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각국 간 협력 대응을 기대하는 가운데, 일부 정치적 세력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들먹이거나 먹칠 및 남탓 등의 뻔한 속임수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문제와 관련해 사실기반, 과학존중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펼쳐 인류 미래 중대 돌발성 전염병 사태에 더욱 잘 대응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과학적 문제를 정치화하게 되면 바이러스 출처를 찾기는 커녕 ‘정치적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려 국제 방역 조치들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또 인류의 보건건강에 대한 책임감에서 출발해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모든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 세계에 분포된 알려지지 않은 일부 기지와 생물 실험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완전, 투명, 증거기반’의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여 피력했다.

아울러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정치세력은 자국민의 방역 필요와 국제사회의 방역협력에 대한 소원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조작과 지적질 게임에 빠져 수많은 민중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은감불원(殷鑑不遠: 남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각국 간 협력 대응을 기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케케묵은 속임수를 또 쓰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말 이렇게 빨리 이전의 뼈아픈 교훈을 잊은 것인지? 또 다시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어떻게 자국민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국제사회를 대하고 인류의 양심에 대할 것인지?를 물었다. (人民网, 2021.05.28.)

□ 中 2025년 베이더우 산업 총생산 175조원 달할 것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우주항법시스템 베이더우(北斗) 산업 총생산이 1조 위안(약 1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권(楊軍) 중국위성항법시스템관리관공실 부주임이 26일 중국 장시(江西) 난창(南昌)에서 열린 ‘제12회 중국위성항법총회(CSNC)’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위성항법 산업의 총생산이 2020년 4천억 위안(약 70조원)을 돌파했고 연 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베이더우 칩과 모듈 등 주요 기반 산업의 성능과 가격이 국제 동일 제품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베이더우 관련 제품은 이미 120여 개 국가(지역)에 수출돼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산 베이더우 호환성 칩과 모듈의 판매량은 억 단위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더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가진 단말기 보유량은 10억 대를 넘어섰다. 첫 번째 베이더우 고정밀도 GPS를 지원하는 중국산 스마트폰도 발표된 상태다. 해당 모델은 베이더우의 지상기반 보강시스템 신호를 받아 미터 단위의 포지셔닝이 가능하다.

또 4만5천 대가 넘는 농기계가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데도 베이더우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작업 모니터링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 40만 대 이상의 네트워크 설비가 갖추지면서 노동비용의 약 50%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양권 부주임은 향후 ▷기준 통일 ▷풀 커버리지 ▷고정밀도 ▷안전성 ▷스마트화 ▷효율성 등 6가지 측면에서 베이더우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新华社, 2021.5.27.)